

투데이 칼럼

저축과 소비, 삶의 균형을 말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돈과 관련된 선택을 한다.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살 것인지, 점심 메뉴를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것인지, 혹은 이번 달 통장을 조금 더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 지갑을 닫을 것인지.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 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우리의 선택이 삶의 질과 안전망을 동시에 결정한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다. 예상치 못한 실직, 갑작스러운 질병, 뜻밖의 지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러한 순간에 저축이 없다면, 삶은 큰 충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축은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준비와 같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저축이 필수적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한다. '타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그렇다고 저축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비 역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다.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 문화적 경험, 휴식과 자기계발은 모두 소비를 통해 가능하다. 지나치게 저축만 고집하면, 삶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소비'를 강조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만족을 얻는 소비는

삶의 활력과 행복을 높이는 투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한 친구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여행 경비로 계획적으로 모은다. 단순히 돈을 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고, 인간관계를 넓히며, 정신적 만족감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기 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생활은 장기적으로 삶의 활력과 행복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핵심은 수입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서,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쓰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50-30-20 법칙이 하나의 예다. 수입의 50%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 비용, 30%는 취미와 여가, 20%는 저축과 투자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 가치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저축과 소비의 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충분한 저축이 뒷받침될 때 사람은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소비 경험이 없으면, 저축의 목적마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삶의 균형은 돈의 흐름뿐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대 사회는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많은 것'을 사라고 말한다. 최신 스마트폰, 트렌디한 의류, 새로운 외식 메뉴... 소비의 유혹은 끝이 없다.

그러나 현명한 소비자는 광고의 유혹을 넘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마친가지로 저축도 단순히 미래를 위해 억지로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계획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축과 소비의 균형은 나이와 삶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20대는 경험을 쌓고 자신을 발전하는 시기이므로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30~40대가 되면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 장기 목표가 생기므로 자연스럽게 저축의 비중이 늘어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든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태도다.

결국 저축과 소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다.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즐거움과 내일의 안전망 사이에서 조화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재정 생활이며, 더 나아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다.

돈을 어떻게 쓰고 모을 것인가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저축과 소비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오늘 커피 한 잔, 오늘의 작은 저축, 그리고 오늘 선택한 소비의 의미가 모여 내일의 삶을 만든다. 삶은 결국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준비가 함께하는 여정이다.

돈과 삶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조화로운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오늘의 만족과 내일의 안정, 현재와 미래, 저축과 소비가 조화를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사설

비련의 여인 이난영

가수 이난영은 1916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빠인 이봉통과 함께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랐다.

16세 때에 제주도에서 삼천가극단의 순회공연 중 막간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순회극단을 따라다니게 됐다.

삼천가극단이 일본에서 순회 공연을 할 때 작사가인 강사랑이 이난영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오케레코드사의 사장인 이철에게 추천해서, 1932년에 문호월의 곡 '고적'을 처음으로 취입했다.

1935년 '목포의 눈물'을 불러 크게 히트를 쳐서 가요계의 스타로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21세에 작곡가 김해송과 결혼했다.

'목포는 항구다', '다방의 푸른 꿈' 등으로 당대 블루스의 여왕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1939년에는 '오빠는 풍각쟁이'의 박항림, '연락선은 떠난다'의 장세장, '화류춘궁'의 이화자 등과 함께 조선악극단 산하에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그룹을 만들었다.

이는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다. 한국 전쟁 때 남편 김해송이 납북된 이후 악단을 직접 운영했다. 이 시절, 후배 가수였던 남인수와 사랑에 빠진다.

자신을 챙겨주고 아껴주는 남인수의 모습에 반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정도였다. 하지만 남인수가 폐결핵으로 갑자기 죽게 된다.

이난영은 자식들을 따라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고 1965년 알코올과 아편 중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이난영의 자식들은 미국에서 김시스터즈, 김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연예활동을 했고 1970년에는 내한공연도 했다.

온고을 미술대전

제21회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수상자가 최종 결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화 신혜남, △서양화 김용수, △수채화 소병호, △조소 김선규, △공예 조시영, △서에 박혜린, △문인화 박관호, △민화 이미란 등 8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김승화 심사위원장은 "온고을 미술대전이 21회째를 맞으며 전주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출품작들의 수준과 작가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수상작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2층에서 열렸다. 1부 전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서양화, 관화, 전통판각, 수채화, 공예, 조소, 민화 등이 열렸다.

2부 전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화, 서예, 문인화, 디자인, 초대작가으로 나누어 가졌다.

시상식은 18일 오전 11시 전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1·2층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의 공로 부문은 한국화(서양화(파스텔 포함), 관화(서각, 전통판각 포함), 수채화 공예, 디자인(영상), 서예(캘리그래피),문인화, 환경조형(조소), 민화 등이다.

출품 수는 1인 2점 이내이다. 출품료는 일반1점당 6만원(동일 분야 2점일 경우 10만원), 학생·1점당 5만원(동일 분야 2점 일경우 8만원) 서예문인화 입상작은 주회 측 일괄 즉자 표구하며 접수시 3만5,000원을 납부한다.

전시 기간은 9일부터 17일까지였다. 문의처는 사)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010-48337543 전 북자치도 완산구 농호여울1길 19(된나이 코아존관 3층)이다.

독자재언

현재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으며, 도로 위 현실은 이와 결맞은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반응 속도의 저하, 시야감퇴, 연령 특성에서 비롯되는 인지적·신체적 한계의 원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사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시스템이 필요할 때

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는 있으나 실효성을 낮고,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빠른 모든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기술과 제도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선진국가들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어르신들 운전자 대상의 운전적성 검사 강화, 전문교육, 교통안전 시뮬레이터 체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모두의 공간으로, 현재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 책임을 고령운전자 각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동참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모두가 도로를 안심하게 이용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등 고령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시스템이 필요할 때이다.

김양미 고창경찰서 경무계행정관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